

관광 자원 개발

셋째, 전라북도 내에 지정되어 있으면서 문화권 별로 약 5,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지리산문화권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전통 문화의 계승은 물론 특색 있는 정주 환경, 산업 및 관광자원 개발이 기대된다.

동시에 동부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무주리조트, 무주태권도공원, 장수 승마산업, 진안 한방홍삼리조트, 남원 연수관광지, 임실 치즈체험마을, 순창 강천산 등을 하나의 연담 벨트로 연결하고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코자 한다. 이는 한국에서 가

장 깨끗한 공기와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장점을 기반으로 동부권이 세계적인 관광휴양 지역으로 자리매김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새만금 명품도시 내 링 로드(Ring road)를 중심으로 새만금 연담도시권 전체를 1시간 권에 연계해 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신교통 수단 도입을 추진하며, 전주 및 동부권 지역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3개 노선 약 1조 5,000억원)과 전주~군산공항간 30분대 도로망 구축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다.

제주 : 국제자유도시 '완성' 공언

김영헌 | 제민일보 기자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을 이끌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공언했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해 굵직굵직한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예정 등으로 인해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우근민도정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을 펴왔던 민선 4기 시절과는 다른 색깔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제주도정이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

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10개 분야 58개 주요 공약 가운데 건설 관련 공약은 3~4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민선 5기에 이뤄지는 건설 분야 사업은 사업비만 수조원대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즐비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시설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우 지사 취임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거나 가시화된 것들이지만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제주도정이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다.

핵심 프로젝트 중에서도 현재 부지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비만 1조 7,806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국제학교 12개교와 영어교육센터, 교육문화예술단지,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건설될 계획이며, 2만 3,000명이 거주하는 하나의 소규모 도시급으로 조성된다. 또 다른 핵심 프로젝트인 애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도 1조 7,981억원으로 역시 초대형 사업이다. 또 올 하반기 부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도 조 단위인 1조 5,945억원으로, 이들 3개 프로젝트의 사업비만 합해도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내년 상반기 착공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7,8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제주 지역에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되면 두각을 나타낼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무역지구, 제2관광단지 등

우 지사의 공약과 맞물려 한때 추진 계획조차 중단됐던 자유무역지구 조성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 지사는 제주 지역의 수출 1조원 시대 달성과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항 인근에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추진 여부가 관심거리다. 당초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주공항 인근에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사업비 2,200억원)이 계획됐지만, 우 지사는 사업 예정지와 규모를 수정키로 했다. 또한 제주도정과 JDC,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할 예정인 제

2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우 지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 시작돼 지금까지 표류하다 지난달 들어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되는 대단한 진전을 이뤄냈다.

서귀포시 동홍동 미약산 일대 238만 7,000여㎡에 8,037억원(공공 1,228억원·민자 6,8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의 공약으로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제주의 자연적 가치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제주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하나인 감귤타워 등 관광시설 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각각 550억원과 2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제주 사회를 심각한 갈등 상황에 빠뜨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당초 9월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사업 예정지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돌발 변수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해군기지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포구를 중심으로 해군 부두와 크루즈 선박 방파제·부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201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의무공동도급제 시행도 공약

이와 함께 우 지사는 제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발주 모든 공사의 경우 최소 40% 이상은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도내 건설업체들과 의무 공동도급하는 의무공동도급제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해 지역 건설업체들은 그 시행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CERIK